

완주군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높은 청렴도·교통복지·로컬푸드 확대·소통 행정 등 공로 인정

완주군이 제8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 제8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내일신문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다산목민대상은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전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등 3가지 분야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통공감단, 군민기자단 등 주민과 함께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다산목민대통령상의 주인공은 9만 5천여 완주군민이며, 공공과 청렴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다산 선생의 '공렴(公廉) 정신'과 '목민정신'을 이어 받아 항상 군민만을



박성일 완주군수는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8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바라보며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섬기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완주군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목민정신인 '율기, 봉공, 애민'을 '소통, 변화, 열정'으로 재해석하여 '교통은 복지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교통복지 1번지 완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 급식 등

을 통해 완주 로컬푸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전국 최초 소통형성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람 중심, 창의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시책 추진 등을 통한 높은 청렴도를 유지 6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홍삼 미국시장 홍보 나서

어바인시 한인문화축제 초청받아

이항로 진안군수와 이항기 군의장은 12일부터 진안홍삼의 해외시장 확보와 어바인 한인문화축제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14일에 참석하게 될 제7회 어바인 한인문화축제에서는 진안군 홍보관을 2년 연속 운영한다.

지난해 홍보관 운영 시 현지인의 많은 관심과 현지 언론의 열띤 취재로 성과를 이루어 올해에는 더욱 풍성한

게 홍보준비를 하였다.

축제에 참여한 한인인 현지 주민들에게 홍삼젤리, 홍삼캔디, 홍삼차, 홍삼탕 등 홍삼제품 시식회를 갖고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할 안내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다. 옷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를 제공하여 우리 문화를 공감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또한 진안군 일행은 어바인 시청을

공식 방문해 진안홍삼이 한국 뿐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석호 시장과 환담을 나눈다.

특히 이번기회에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홍삼제품 수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진통시장, LA AT(한국농수산물수출공사)센터, 농산물 유통업체 등 관련 단체와 교류활성화 의견을 나누고 오는 23일 귀국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어바인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진안홍삼의 해외시장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자봉센터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전주예술중학생 120명 대상

완주군자원봉사센터는 11일 구이 소재 전주예술중학교 강당에서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2016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완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립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원봉사센터

를 포함해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사)전북생명영양, 완주경찰서, 완주보건소, 고산무궁화천문대 총 7개 기관에서 13개 체험을 준비했다.

체험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알리기와 리본공예, 숲 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한 us고리 만들기, 천연 모기퇴치제 만들기, 전염병 감염예방, 1365 홍보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원봉사 체험 및 진로체험으로 구성됐다.

전주예술중학교 육심철 교장선생님은 "박람회가 아이들에게 자원봉사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 삼아 앞으로 자원봉사를 더 활발히 하는 전주예술중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를 알리고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체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전안군청 전학산입과
063-430-2951



11일 제44회 어버이날 기념 나눔·행복 효도잔치에서 황정수 완주군수가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무주군 나눔·행복 효도잔치 성황

제44회 어버이날 기념 나눔·행복 효도잔치가 11일 무주예체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진옥)와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이 공동 주관하고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 무주군이 후원한 것으로, 황정수 무주군수와 이한승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전문 자원봉사단과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고사리봉사단의 식전공연(원광어린이집)과 실버태권도 봉사단 시범을 비롯해 기념식과 문화·예술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무주읍 장한별 씨와 라귀영 씨, 메이로즈 가비소가 어버이날 유공자 표창(무주군수상)을 받았다. 또 무풍면의 이소연 씨가 무주군의회의 의장상을, 안성면의 이옥자 씨와 부남면의 계은숙 씨,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수민 씨가 무주종합복

지관장상을 수상했다.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주최했던 제5회 '효' 문화체험 한마당(백일장 & 사생대회)에서는 중앙초 4학년 양서연 학생(백일장 부문-“우리가족”)과 5명이 군수상을 했으며 예뻐어린이집 김연우 어린이(그림부문-“산책을 했어요”)와 5명이 무주교육장상을, 실천중 3학년 이슬 학생(백일장 부문-“그 웃음의 의미”)와 7명이 무주종합복지관장상을 받았다.

황 군수는 “올해는 기관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 행사를 준비한 만큼 사랑도 정성도, 감사한 마음도 배가 되는 것 같다”며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 자리가 더 빛이 나고 따뜻해진 만큼 우리 무주가 100세 시대가 두렵지 않은 무주,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무주, 살아보니 정말 좋은 무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로컬푸드리스

무주경찰, 체감안전도 도내 1위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사진)은 2016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본청 조사·전북지방청 자체 평가 결과 각각 도내 1위 평가 결과를 거두었다.



체감안전도 평가는 매년 상·하반기 본청과 지방청에서 평가하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범죄안전도, 교통사고 안전도, 범죄자 준수 등 전반적인 안전도를 비점측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로 평가를 하고 있다.

아울러 무주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활동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1·2·3공감순찰(문안순찰), 농·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야간 협력방범(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개최, 교통사고 다발지역 다기능 목검문 실시, 4대약 근절 홍보활동 등 세심한 치안 활동을 펼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한 서장은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하는 경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회

진안군은 11일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전 담당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를 강당에서 가졌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실·과·소에서 직접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군정의 전문기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는 인식으로 향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사업의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군은 2020년대 군 예산 4,000억 확보를 위해 군 재정 수립과 연결될 수 있는 시설투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군정 정보제공과 행정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배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생산물 판매 전략과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장수군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장수군은 올 초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49동을 선정하고 호당 6백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사업을 전개, 현재 13동을 완료했다.

군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교체, 부엌 및 화장실 개량, 도배 및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을 전개해 저소득세대의 주거안정과 건강, 위생, 생활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어촌공 유한식 상임감사

무진장지사 방문 청렴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유한식 상임감사가 지난 10일 무진장지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안구)는 업무보고 시 정부 정책사업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지사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유한식 감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성장사업과 도전적인 사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항상 깨끗하고 정직한 자세를 잃지 않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